

(특허등록 제10-2102468호 / 제10-2469983호)



프로그램 소개서

www.ref3.co.kr

www.ref3.co.kr

www.ref3.co.kr

www.ref3.co.kr



www.it3.co.kr
(주)아이티쓰리

Ref3(렘쓰리) 소개

▶ Ref3(렘쓰리)란?

- Reference의 Extraction(추출) / Cross Check (교차) / Verify(검증)의 줄임말로써 본문의 인용과 참고문헌의 교차율(크로스체크)과 인용의 빈도, 적합성을 확인하는 국내최초로 특허등록된 인용, 참고문헌 Solution입니다.

교차율이란 본문에서 사용한 인용과 참고문헌이 교차(크로스체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교차율은 n:n 100%가 나와야 합니다.

$$\frac{\text{교차된 인용}}{\text{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 \text{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 \text{교차된 인용}} \times 100 = \text{교차율}$$

* 본문에 인용을 표기했으면 참고문헌에도 표기를 해야 한다는 단순하고 상식적인 논리이며, 돌중 한곳에 표기가 없으면 교차율에 반영됩니다. 교차율이 낮을수록 연구가치 하락됩니다.

▶ Ref3(렘쓰리)는 무엇을 해주는 프로그램인가요?

- 연구자가 놓칠수 있는 인용/참고문헌에 대한 **오류, 누락, 실수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게 하며, **시간 기회비용**을 줄여줍니다.
- 피인용의 빈도, 참고문헌의 연도별 빈도 등을 검사하여 **논문작성 및 논문지도에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무분별한 인용을 표기해서 표절률을 조작하는 꼼수를 교차율로 **보완/차단**합니다.
- **인용 형식의 오류, 누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용형식의 규격화, 단일화를 지향합니다.

▶ Ref3(렘쓰리)는 표절프로그램과 뭐가 다른가요?

	표절프로그램	인용교차프로그램 Ref3(렘쓰리)
문장 표절률	○	×
인용 교차율	×	○
전체인용/피인용/재인용 등 빈도	×	○
누락된 인용, 누락된 참고문헌	×	○
연구부정행위, 표절판정	주관적 판단 필요	객관적 판단 가능

참고문헌은 크게 내주(내각주), 각주, 미주 3가지의 방식으로 구분되며, Ref3(렘쓰리)는 특히 내주방식(APA Style 7판, Harverd Style 등)의 인용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간호학, 체육학, 지구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조작이 가능한 표절률! 보완하기 위한 교차율!

▶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예시



출처표시 문장	문장표절률: 0%
그리고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아정체감의 진로정체감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진로 정체감이 발달되면 될수록 직업선택에 있어 덜 혼돈되고 특정 장점과 약점을 지닌 개인의 독특성이 있다는 것을 크게 인식한다(Marcia,1980).	
출처표시 문장	문장표절률: 0%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진로정체감은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고 자기 개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진로정체감이 바르게 확립되어 있어야 진로에 관한 장애 현상이 줄어들고 본인의 흥미와 재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한 걸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한정아, 강승호,2007).	

*** 제외 : 인용의 표기만 있다면 문장이 동일하더라도 표절률에서 제외하라는 의미**

▶ 인용/출처 표시문장 “포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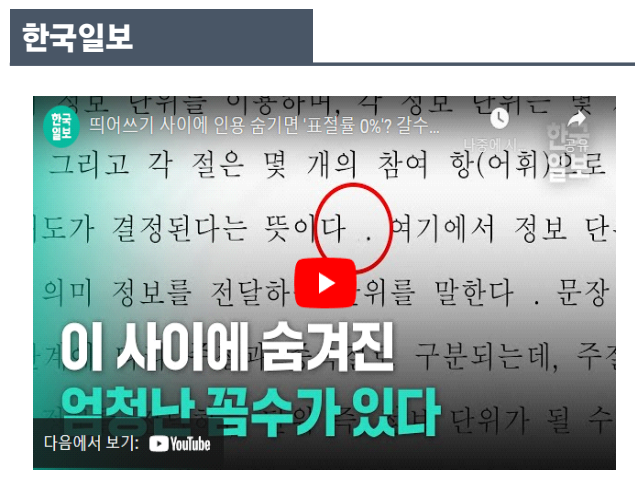
출처표시 문장	문장표절률: 100%
그리고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아정체감의 진로정체감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진로 정체감이 발달되면 될수록 직업선택에 있어 덜 혼돈되고 특정 장점과 약점을 지닌 개인의 독특성이 있다는 것을 크게 인식한다(Marcia,1980).	
출처표시 문장	문장표절률: 100%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진로정체감은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고 자기 개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진로정체감이 바르게 확립되어 있어야 진로에 관한 장애 현상이 줄어들고 본인의 흥미와 재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한 걸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한정아, 강승호,2007).	

*** 포함 : 인용의 표기가 있더라도 문장이 동일하면 표절률에 포함하라는 의미**

- 대부분의 대학은 인용/출처 표시문장을 “**제외**”하고 표절률을 검사하고 있으며, 표절프로그램은 인용의 표기만 있다면 모든 인용을 정상적인 인용으로 판단합니다. **인용의 표기가 틀렸거나, 참고문헌에 인용의 표시가 없어도 이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 이를 악용하면 재해석 없이 문장과 인용까지 그대로 사용해서 **100% 표절해도 표절률을 0%로 인위적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교차율은 100%를 권장하며 교차율이 낮다는 것은 이를 악용했음을 증명합니다. 진화된 표절의 사례를 반증합니다.
- 문장과 인용까지 재해석 없이 사용하면 **2차문헌표절에 해당**합니다. 내용의 재해석이 되었어도 해당 인용이 참고문헌에 없으면 **고의성 여부 판단후 연구부정행위 or 사실상 “표절”**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누락이 **100개 이상이라거나 %로 봤을때 50%도 안맞는 수준이라면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게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입니다.

연구자들이 자주하는 실수

1. 지도과정에서 논문 내용과 인용의 상당수가 수정되었는데 참고문헌은 수정하지 않은 경우
(본문만 수정)
2. 선행논문을 참고하고 재해석해서 논문을 잘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문헌의 작성은 논문의 후반부에 별도로 작성해서 참고문헌 표기를 누락하는 경우 **(참고문헌 부실)**
3. 선행논문과 선행논문이 참고한 인용까지를 내 논문에 표기하였지만 참고문헌에는 내가 읽은 선행논문만을 표기하여 재인용 된 참고문헌의 표기를 누락하는 경우 **(재인용의 무지)**
4. 선행논문을 재인용하면서 선행논문 인용의 저자명, 발행년의 오타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저자의 출처 재확인 부실)**
5. 특히 학위논문을 인용할때 본문에는 학위논문의 졸업년을 적고, 참고문헌에는 학위논문의 수료년을 적는 경우 **(RISS 데이터의 통일성)**
6. 문서 작성과정에서 발행년을 2202로 적는 다거나 20222라고 적는 실수는 하는 경우
(문서작성의 실수)
7. APA형식등 학계에서 규정한 형식의 이해도가 부족해서 표기를 잘못 적는 경우
ex) (2022, 홍길동) (홍길동, 2020 등등) **(형식이해 부족)**



연구자들의 진화된 연구부정행위

1. 무분별하게 문장의 종결어미 “다.” 뒤 마다 (홍길동, 2020)과 같은 인용을 넣은 경우
(인용의 과다비중)
2. 쌍따옴표의 표기도 없고, 내용의 재해석 없이 문장과 인용까지 모두 자기의 것처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 **(인용까지의 표절)**
3. 참고문헌을 풍부하게 보이기 위해 본문에 사용하지 않은 인용을 참고문헌에 다수 표기한 경우
(참고문헌의 과다비중)
4. 표절률을 줄이고 지도교수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인용을 작게, 배경색과 같은 글씨로 숨기는 경우 **(악의적 표절)**
5. 고문헌, 국외단행본 같은 구하기 어렵거나 찾을수 없는 문헌을 재인용의 표기 없이 직접인용한것으로 표기하는 경우 **(2차문헌 표절)**
6. 본문에 인용을 수백여개 사용하였지만 해당 인용이 참고문헌에 50%이상 누락된 경우
(참고문헌 표기 부실)
7. 피인용자를 중심으로 한 논문이 아님에도 인용의 표기는 했더라도 동일한 피인용자의 인용을 50건 이상 수차례 한 경우 **(피인용 표절)**

위 사례는 모두 인용의 표기는 하였지만 내용의 재해석이 없거나(2차문헌 표절) 재해석을 하였더라도 인용을 참고문헌에서 50%이상 누락했다면 미필적고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의 표기, 출처의 표기가 없다면 표절이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교묘하게 피해나간 꼼수이며, 인용의 표기만 있다면 타인의 문장을 재해석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표절률의 맹점을 악용한 꼼수입니다. 올바른 표절률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표절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 표절은 없다! 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표절률이 7%여도 표절일수 있고, 표절률이 70%여도 표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육부 연구윤리센터 질의 응답

학위논문에서 본문의 인용과 참고문헌이 교차(크로스체크)되지 않고 상반되며, 인용/참고문헌의 오류 누락이 다수 확인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1. 각주(내주) 등과 따옴표 사용 등 인용 표시를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논문 전체에서 **인용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이는 사실상 '표절'에 해당**합니다.
2. 이와 같은 실수가 거듭 나타난다면 논문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이고, 이와 같은 **저자의 고의적인 부주의함(carelessness)과 무지(negligence)는 연구부적절행위**입니다.
3. 인용에는 A참고문헌에서 인용했다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참고문헌이 없거나, A**참고문헌 원문과 그 내용이 상반된다면, 이는 연구부정행위**입니다.
4. **참고문헌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면**, 인용된 참고문헌 원문의 내용을 독자가 파악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위변조 및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학술적 가치가 없습니다**.
5. **연구부적절 행위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면**, 학술적 가치 여부 판단에 따라 논문을 철회해야 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회에게도 그 불성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대학신문

UNN

‘표절률’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유사도 통해 표절 여부 검증하는 대학교 ‘주목’

논문 표절 시비 늘어나자 카피킬러 등 표절 막을 논문 유사도 검증 시스템 활용
유사도 통해 표절 여부 검증하는 프로그램…대부분 대학·대학원·공공기관서 채택
도입 10년째 ‘허점’ 드러낸 검증 시스템…무작위 인용에 인용문 오타까지 똑 같아
교묘한 짜깁기로 연구 윤리도 훼손…‘교차율’ 활용에 논문 검증하는 ‘Ref3(렘쓰리)’ 대안으로

한국강사신문

한국강사신문

KOREA LECTURER NEWS

(주)아이티쓰리, 진화된 표절 방지 프로그램 ‘렘쓰리(Ref3)’ 개발 및 출시

- 표절율은 인용부호만 붙이는 것만으로도 쉽게 조작
- 인용표기는 했지만 정작 참고문헌에는 미표기
- 표절율과 더불어 교차율 사용으로 연구부정행위 예방 극대화

[한국강사신문 김민철 기자] (주)아이티쓰리가 학위논문 표절율의 공수를 집기위해 표절과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Ref3’(이하 렘쓰리)의 개발 및 출시했다고 밝혔다.

문장 뒷부분에 ‘홍길동, 2022’와 같이 인용부호만 붙이는 것만으로도 표절율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헛점이 들어났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서도 이러한 헛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타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 결과 통보문

본문의 인용과 참고문헌이 교차(크로스체크)되지 않고 상반되며, 인용/참고문헌의 오류 누락이 다수 확인되는 것에 대한 대학별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과 통보문

▶ 서울 S대학교 결과

3.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피조사자의 학위논문은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의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동 규정 제7항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4. 위 판정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후, 논문작성 규칙에 부합하도록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재발방지와 문제점 상기를 위해 피조사자의 지도교수에게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기로 하고 본 사안을 종결하기로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 서울 H대학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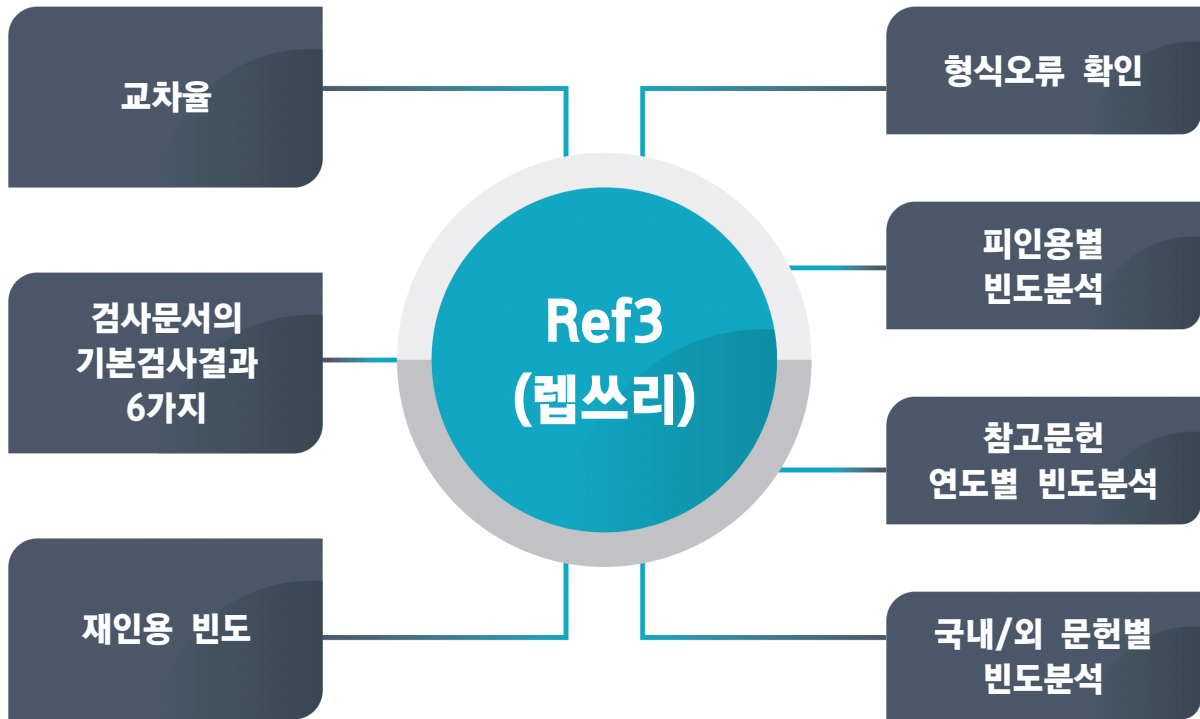
■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1. 예비조사위원회에서는 1)연구자가 논문을 쓸 때 보통 외국어로 된 원문(1차 문헌)을 직접 찾아 번역하거나 페러프레이징 또는 요약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타인이 인용한 2차 문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출처표기를 한다면 2차 문헌 표절에 해당함 2)기타 이외에 아이디어, 연구모형, 연구방법, 표본, 데이터, 결과분석 및 결과제시에 대해서는 피표절논문과 비교하였을 때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2. 피조사자의 석사학위논문과 피표절논문들을 확인한 결과 I.서론, II.이론적 배경, V. 논의 의 일부 문장에서 2차 문헌 표절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의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의 결과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관련 논문, 교육부 지침 및 본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 결과를 승인하며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0조(예비조사)에 따라 본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함.

Ref3(렙쓰리) 주요기능



▶ 기본검사 (무료)

- 교차율
- 검사문서의 기본검사결과 6가지
 - 본문 내 인용(중복된 저자 포함)**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
 - 본문 내 인용(중복된 저자 제외)** - 중복된 저자를 제외한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
 - 참고문헌**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참고문헌
 -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 참고문헌에 표기가 없는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 본문에 표기가 없는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 교차된 인용** - 본문/참고문헌에 모두 표기가 있는 올바른 인용
- 형식오류
- 재인용 빈도
- 피인용별 빈도
- 참고문헌 연도별 빈도
- 국내/외 문헌별 빈도
 - * 빈도의 수치를 제공하고 미리보기 데이터를 5개 무료제공
 - * 빈도가 높게 나오거나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을때만 상세검사 권장합니다.
 - * 첫검사는 반드시 기본검사(무료)를 권장하며, 상세검사를 하더라도 이후부터의 검사는 다시 기본검사를 권장합니다.

▶ 상세검사

- 기본검사와 모두 동일하고 빈도의 수치와 모든 데이터를 제공



(상세) 결과확인서

①

교차율 21.97 %

교차율이란? 교차율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본문의 인용과 참고문헌이 교차(크로스체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교차율은 100%가 나와야 합니다. 교차율이 낮으면 인용에 오류, 누락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한 과도한 **재인용**, **피인용**은 연구가치가 떨어집니다.

교차율 계산식은?
$$\frac{\text{교차된 인용}}{\text{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 \text{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 \text{교차된 인용}} \times 100$$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이란?
본문에는 인용의 표시가 있지만 참고문헌에 출처의 표시가 없는 인용입니다.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이 많을수록 고의성이 높아지며, 2차문헌 표절 및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차율 100%를 만들려면?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을 삭제하거나 인용을 참고문헌에 표시해야 하며, 형식의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을 삭제하거나 인용을 본문에 표시해야 하며, 형식의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검사자 : _____ (서명)

확인자 : _____ (서명)

②

아이디	admin@it3.co.kr	검사번호	005523
대학교/대학원명		검사일자	2023-05-14 16:02
학위명		문서명	(5.11)고예주+논문+원고-최종본.pdf

③

APA Style (7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Chicago Style (각주) <input type="checkbox"/>	Harvard Style <input type="checkbox"/>	IEEE Style <input type="checkbox"/>
APA Style (6판) <input type="checkbox"/>	Chicago Style (내주) <input type="checkbox"/>	Vancouver Style (NLM Style) <input type="checkbox"/>	MLA Style <input type="checkbox"/>
형식오류 포함 <input type="checkbox"/> / 제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형식오류는 오타(띄어쓰기, 마침표, 콤마, 세미콜론)와 인용스타일의 오류를 말합니다. 형식오류는 교차되지 않습니다.			

④

▶ 기본검사결과						
본문 내 인용 (중복된 저자 포함)	본문 내 인용 (중복된 저자 제외)	본문 내 재인용	참고문헌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교차된 인용
511	298	4	190	206	103	87

본문 내 재인용이 많을수록 학술적 가치는 낮게 판단됩니다. 재해석 또는 직접인용을 권장합니다.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은 "0" 이 되어야 하며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교차율은 100%가 나와야 합니다.

- ① 교차율이 표시됩니다.
- ② 검사자, 검사문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③ 검사문서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검사 시 선택한 검사문서의 스타일형식이 표시됩니다. 형식오류는 기본검사 시 "포함"으로 제공하며, 상세검사, 기관회원은 "포함/제외" 선택이 가능합니다.
- ④ 기본검사결과의 수치가 표시됩니다.

본문 내 인용(중복된 저자 포함)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

본문 내 인용(중복된 저자 제외) - 중복된 저자를 제외한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

본문 내 재인용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재인용

참고문헌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참고문헌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 참고문헌에 표기가 없는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 본문에 표기가 없는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교차된 인용 - 본문/참고문헌에 모두 표기가 있는 올바른 인용

결과확인서 ②

⑤

▶ 빈도검사결과	
- 피인용 빈도 (본문 내 인용 기준)	
1순위	강진령(2021) / 18 건
2순위	강하라(2019) / 14 건
3순위	이영란(2019) / 9 건
4순위	강복경, 강기경, 박수선, 손서희(2016) / 8 건
5순위	오옥선, 김성봉(2012) / 6 건
피인용은 5건 미만을 권장합니다.	
- 발행연도 빈도 (참고문헌 기준)	
	2010년 이후 120 건
	2000 - 2010년대 39 건
	1990 - 2000년대 15 건
	1980 - 1990년대 10 건
	1980년 이전 6 건
90년대 이전 문헌은 재인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내 문헌유형 빈도 (137 건)	
학술지, 학회지	63 건
학위논문(석사)	20 건
학위논문(박사)	29 건
단행본, 기타 문헌	25 건
- 국외 문헌유형 빈도 (53 건)	
학술지, 학회지	29 건
학위논문(석사)	0 건
학위논문(박사)	0 건
단행본, 기타 문헌	24 건


⑤ 빈도검사결 4가지의 수치가 표시됩니다. 빈도검사의 경우 지도자에게 있어서 더욱 용이합니다.

피인용 빈도 - 검사문서에서 한사람의 피인용이 몇건까지 있는지 표시됩니다. 한사람의 피인용은 석사논문 기준 5건 미만 / 박사논문 기준 10건 미만을 권장합니다.

발행연도 빈도 - 최신문헌이 선호되며 90년대 이전 문헌은 재인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문헌유형 빈도 - 연구주제, 발행기관에 따라 유형의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국외문헌유형 빈도 - 특히 단행본, 기타 문헌의 경우 재인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www.ref3.co.kr

결과 리스트

	본문 내 인용	참고문헌
①	김현수, 진현주 (2014)	김현수, 진현주 (2014). 유치원교사의 유아문제행동지도: 지도 현행과 현직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요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9(2), 57-81.
②	인용이 본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용의 오발자, 누락, 중복을 확인하세요.	김현지, 이효동, 이상수 (2019). 초등교사의 사회경서역량과 직무만족도가 교사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58: 35-50.
③	김현지, 이효동, 이상수 (2019) 저자명 3인 이상 표기 오류 형식오류	인용이 참고문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용의 오발자, 누락을 확인하세요.

① 본문과 참고문헌에 모두 표기가 있는 올바른 인용이며, 검은색으로 표기됩니다.

② 본문에는 표기가 없고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은 **파란색**으로 표기됩니다.

③ 참고문헌에는 표기가 없고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은 **빨간색**으로 표기됩니다.

④ **형식오류**가 확인되면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고 수정을 유도합니다.

형식오류란?

▶ 형식오류가 확인되면 해당 인용, 참고문헌의 뒤에

형식오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 콤마,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등 기호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형식오류로 판단합니다. 인용의 형식은 국제규격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규격과 통상적 국내표기를 기준으로 형식오류를 표기합니다. 콤마 하나 띄어쓰기 하나 까지도 형식오류로서 찾아주며 연구자의 실수를 최대한 줄여주고 연구의 완성도와 질을 높여 줍니다.
- 문서 업로드 시에 선택했던 인용 스타일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오류, 누락, 오타자 등을 알려줍니다. ex) et.al, × / et al. ○
- 형식오류가 있으면 “저자명(발행년)”이 동일 하더라도 교차하지 않습니다. 형식오류는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형식오류 수정방법을 참고하면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 형식오류는 렘쓰리의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형식오류만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사용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 **형식오류부터 수정하고 누락된 인용을 찾으면 교차율을 쉽게 100%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번호	
[공지]	▶▶IEEE Style (NLM) 매뉴얼
[공지]	▶▶Vancouver Style (NLM) 매뉴얼
[공지]	▶▶Harvard Style 매뉴얼
[공지]	▶▶Chicago Style 내주 (17판) 매뉴얼
[공지]	▶▶Chicago Style 각주 (17판) 매뉴얼
[공지]	▶▶APA Style (7판) 매뉴얼

🔍 매뉴얼

- 형식오류가 다수 확인되었다면 렘쓰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홈페이지 우측하단에 각종 스타일별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다수의 인용/참고문헌 누락 또는 다수의 형식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만 상세검사를 권장합니다.

형식오류 수정방법 ①

▶ APA Style 7판 (본문 내 인용 기준)

* 본문 내 인용에 형식오류가 있으면 교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식오류를 수정해야 교차가 됩니다.

본문 내 인용	형식오류 수정방법
<p>김명연 & 노연희(1998) 국내 저자명 사이 & (앰퍼센드) 오류 형식오류</p>	<p>국내 저자명 사이에는 , 콤마 또는 와, 과 사용합니다.</p>
<p>김명연 et al.(1998) 국내 저자명 뒤 et al. 표기 오류 형식오류</p>	<p>국내 저자명 뒤에는 외 또는 등을 사용합니다.</p>
<p>김문성, 박성철(2013, pp.17- 19) 페이지 내 띄어쓰기 오류 형식오류</p>	<p>페이지 구분기호 - 하이픈 뒤 불필요한 띄어쓰기를 삭제합니다.</p>
<p>박익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김영래, 고미숙(2008) 저자명 3일 이상 표기 오류 형식오류</p>	<p>APA 7판은 저자명 3인 이상은 외 또는 등으로 표기합니다.</p>
<p>보건복지부(2022, p249) 페이지 표기 오류 형식오류</p>	<p>페이지 표기 p 다음에 . 마침표를 표기합니다.</p>
<p>서현민(2021년도) 발행년 표기 오류 형식오류</p>	<p>발행년의 뒤에 “년도”를 삭제합니다.</p>
<p>정현철(2007, 재인용, p. 12) 재인용 표기 오류 형식오류</p>	<p>페이지 뒤에 재인용을 넣어야 합니다.</p>
<p>홍길동(2008) 발행년 앞 기호 [, ; / & () 등] 표기 오류 형식오류</p>	<p>발행년의 앞에 불필요한 , 콤마를 삭제합니다.</p>
<p>(곽미라, 2018: 이점자, 201) 발행년 표기 오류 형식오류</p>	<p>발행년의 오타자를 수정합니다.</p>
<p>(김경해, 2012; 송지민, 2009) 발행년 뒤 띄어쓰기 오류 형식오류</p>	<p>2009 뒤에 불필요한 띄어쓰기를 삭제합니다.</p>
<p>(홍길동(1992) 저자명 앞 (괄호 표기 오류 형식오류</p>	<p>저자명과 발행년 사이에 (대신 , 콤마를 표기합니다.</p>
<p>(홍길동2023) 저자명 발행년 사이 , (콤마) 누락 형식오류</p>	<p>저자명과 발행년 사이에 , 콤마를 표기합니다.</p>

형식오류 수정방법 ②

▶ APA Style 7판 (참고문헌 기준)

* 참고문헌에 형식오류가 있으면 교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식오류를 수정해야 교차가 됩니다.

형식오류 수정방법	참고문헌
이니셜 J, 사이에 . 마침표를 표기합니다.	Ahmadian, M. J, & Tavakoli, M. (2011). The effects of task repetition on accuracy production. 형식오류 국외 저자명 이니셜 뒤 기호 [. , ; / & () 등] 오류
마지막 국외 저자명 앞에 & 앰퍼샌드를 표기합니다.	Bygate, M., and Samuda, V. (2005). Integrative planning and the use of task repetition. 형식오류 국외 저자명 사이 and 표기 오류
국외 저자명은 성, 이니셜., & 성, 이니셜. 로 표기합니다.	R. Ellis. (2003).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형식오류 국외 저자명 표기 오류
(1991) 다음에 . 마침표를 표기합니다.	Hunt, K. W. (1991) Syntactic maturity in schoolchildren and adults. Press. 형식오류 발행년 뒤 . (마침표) 누락
저자명 이니셜은 대문자 A 로 표기합니다.	Kang, a. (2017). The Effects of Task Repetition on Education, 22(4), 69-101. 형식오류 국외 저자명 소문자 오류
APA7 표기법이 아닙니다. 표기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李聖賢, 「드라마 수용에 있어서의 팬덤(Fandom)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翰林大學校, 2003. 형식오류 알수 없는 표기법
국내 저자명 사이에 , 또는 가운데 점을 표기합니다.	김민경, & 신제구 (2018). 참고문헌 표기법, 학지사. 형식오류 국내 저자명 사이 & (앰퍼샌드) 표기 오류
저자명 (발행년) 사이 불필요한 , (콤마)를 삭제 합니다.	박현주, (2019).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형식오류 저자명 (발행년) 사이 , (콤마) 오류
저자명은 APA 7기준 20까지 모두 표기합니다.	Grady, J. S., Her, M., Moreno, G., Trady, J. S., Her, M., Toreno, G., Terez, C., Drady, J. S., Der, M., Doreno, G., ... Yelinek, C. D. (2019). Syntactic maturity in schoolchildren and adults. Press. 형식오류 저자명 21인 이하 표기 오류

이용권충전 (개인회원의 상세검사 필요시에만 사용권장)

- ▶ 기본검사 - 하루 2회 무료이며, 기본검사만으로 충분한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 ▶ 상세검사 - 오류, 누락 인용이 많다면 기본검사 이후에 상세검사를 권장합니다. 1회 33,000원(vat포함)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세검사 1회 이후에는 기본검사 만으로 잔여수정이 충분합니다.

* 각 대학의 총학생회와 MOU체결시 1~2학기동안 대학원 컴퓨터실, 전산실 등에서 무제한 상세검사가 가능합니다.

admin@it3.co.kr님 환영합니다.

[이용권충전](#)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웹쓰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 이용권충전 후 상세검사가 가능합니다.

* 웹쓰리는 기본검사(무료)를 권장합니다. 오류, 실수가 많은 논문에 대해서만 상세검사를 권장합니다.

이용권 충전

Home / 이용권 충전

Ref3 이용권
결제금액 (부가세 포함) 33,000원

■ 결제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까지 총 3가지의 결제수단 중 선택해서 결제 후 검사가 가능합니다.

* 1회당 1개의 이용권이 결제 가능하며, 1개 이용권 소진 전까지는 추가결제(누적)가 불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Home / 마이페이지

■ 이용권정보 [이용권 충전](#)

사용가능한 무료이용권	사용한 무료이용권	사용가능한 유료이용권	사용한 유료이용권
0	0	0	0

■ 결제내역

번호	결제일시	내용	수량	결제수단	영수증
결제내역이 없습니다.					

« < 1 > »

마이페이지에서 이용권의 정보이력 및 결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시 이벤트를 개최하여 무료이용권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상세검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 기관회원

▶ 개인회원

- 일일 검사 가능 문서 수 : 2회
- 검사 가능 용량 : 500KB(평균논문 용량)
- 비용 : 기본검사 **무료** / 상세검사 1회 33,000원(vat포함)
- 서비스 : 교차율, 검사문서의 기본검사결과 / 총 6종
 - 본문 내 인용(중복된 저자 포함)**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
 - 본문 내 인용(중복된 저자 제외)** - 중복된 저자를 제외한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모든 인용
 - 참고문헌** - 검사문서에서 사용된 참고문헌
 -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 참고문헌에 표기가 없는 본문에만 사용된 인용
 -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 본문에 표기가 없는 참고문헌에만 사용된 인용
 - 교차된 인용** - 본문/참고문헌에 모두 표기가 있는 올바른 인용
- 형식오류, 재인용 빈도, 참고문헌 연도별 빈도, 피인용별 빈도, 국내/외 문헌별 빈도 / 총 6종
 - * 기본검사 시 빈도의 수치를 제공하고 미리보기 데이터 5개를 제공합니다.
 - * 상세검사 시 빈도의 수치와 데이터를 모두 제공합니다.

▶ 기관회원

- 일일 검사 가능 문서 수 : 무제한 (1회당 10개문서까지 가능)
- 검사 가능 용량 : 200MB
- 비용 : 협의
- 서비스 : 기본검사와 동일하고 빈도의 수치와 모든 데이터를 제공
- **추가 서비스**
 1. 형식오류의 포함/제외 선택 가능
 2. 형식오류 모아보기 기능 제공
 3. 최대 10개 문서를 동시 검사 가능

▶ 기관회원 협의사항

- **학부포함 전교생을 기준 / 대학원 전교생 기준 / 학위논문 졸업예정자 기준**
총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재적인원을 제공 받은 후 비용협의
- **기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비용확인 후 최대한 학교의 입장에서 비용을 협의**
- 1만명 기준 1인당 500-1,000원 수준의 가격제안

▶ 문의사항

(주)아이티쓰리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A동 1206호 (가산동, 갑을 그레이트 벨리)
개발팀 대표전화 | 02) 6275-6637
박래진 실장 | admin@it3.co.kr